

발간사

유학이 처음 한국에 수용된 시기에 대하여는 아직 정설은 없습니다. 그러나 삼국시대 이전인 것만은 분명하며, 유학이 고려 말부터 조선시대 전반에 걸쳐 한국사회를 주도한 것 또한 분명합니다. 특히 조선 중기 주자학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를 기반으로 조선성리학이 정립되고 17세기 이후 사림파가 정권을 장악하여 주자학이 강력한 통치이념으로 작동되면서 유학사상에 대한 철저한 연구가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례로 17세기부터 160여년에 걸쳐 『주자대전』에 대한 주석 작업이 진행되어 19세기 이항로(李恒老)에 의하여 『주자대전차의집보(朱子大全筭疑輯補)』가 집대성된 사실을 들 수 있습니다.

조선시대 유학사상은 치열한 논변을 통하여 발전하였습니다. 16세기의 사단칠정논변, 18세기의 호락논변, 19세기의 심설논변 등 한국성리학 삼대논변이 대표적인 것입니다. 이 논변의 주역들은 자신의 학설을 정당화하고 상대방의 주장을 비판하기 위하여 사서오경 등 유교경전과 주자학에 대하여 치밀하게 분석하고 재해석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전통은 현대 유학연구자들에게 계승되어 한국학계에는 유학사상에 대한 수준 높은 연구 성과가 축적되었으며 매년 새로운 논문과 저서가 발간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유학에 대한 연구 성과를 분석·비판하고 정리하여 새로운 연구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는 시도는 극히 드문 실정입니다. 각 논문과 저서들

은 개별적으로 발간되는 것으로 끝나버리고 몇몇 전공자들에게만 읽힐 뿐, 학계와 사회에서 의미 있는 역할을 하기 힘든 상황입니다.

이와 같은 문제의식에서, 본 사업단은 2015년도부터 한국에서 이루어진 유교 연구의 현주소를 점검하고 연구 성과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비판적으로 성찰하는 작업을 추진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성과물을 한국어와 중국어 및 영어로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라는 속담처럼 본 사업단은 개별 논문과 저서라는 구슬을 꿰어 한국 유학이라는 보배로 만들고자 한 것입니다.

우리는 치열한 논변의 전통을 가지고 있습니다. 본 레포트를 계기로 연구자들의 연구물들이 사장되지 않고 학계와 사회의 이슈로 부각되어 생산적인 논변의 공간이 형성되기를 기대합니다. 그리고 이 보고서의 영어판 발간을 계기로 한국 유학의 현주소와 연구 성과가 국제적으로 확산되기를 기대합니다.

본 보고서는 문화체육관광부의 지원을 받아 제작된 것입니다. 관계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3년 11월 25일

파주문화원 원장 우관제

울곡학 콘텐츠 개발과 국제화 사업단 단장 최영진